

한국서 개봉도 못한 위안부 영화 중국서 인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애 조명

한·중 합작 다큐 '二十二'

한국 배급사 없어 동시개봉 못해

중국에서 중국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2(二十二)'의 흥행 성공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23일 중국 영화정보 사이트인 마오옌(猫眼)에 따르면 상영 10일을 맞은 이 영화의 박스오피스는 현재 1억4405만 위안(244억원)으로 중국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

지금까지 최고기록은 지난해 8월 개봉한 자연동물 다큐멘터리 '우리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我們誕生在中國의) 6658만 위안이다.

제작비가 300만 위안인 이 영화는 지난 14일 '세계 위안부의 날'에 맞춰 개봉한 첫날 336만 위안의 티켓판매를 기록하며 손익분기점도 넘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22'

이 영화는 또 개봉 첫날 좌석 점유율에서도 32.1%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판 람보'로 불리는 화제작 '전랑(戰狼 2)'의 당일 좌석 점유율 16.7%를 크게 앞서는 수치였다.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 사례도 소개한 이 영화는 또 중국과 한국의 공동 제작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소재의 극영화 '소리굽쇠'를 제작했던 김원동 아시아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에 제작비 일부를 투자하고 책임프로듀서로서 기획과 제작에도 참여했다.

김 대표가 소리굽쇠 개봉 당시 평단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박차순 할머니의 병원 치료를 도우면서 알게 된 귀커(郭柯) 감독이 22 제작 과정에서 먼저 김 대표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영화 22는 2014년 촬영을 시작한 당시 중국 내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숫자도 여기에는 한국인 박차순 할머니(2017년 1월 18일 별세), 이수단 할머니(2016년 5월 17일 별세),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 중인 하상숙 할머니 3명이 포함돼 있다.

김 대표는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 초청된 적 있다면서 "당초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 개봉이 목표였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배급사를 찾

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 영화의 흥행 성공은 그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던 중국에서 위안부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 전문매체인 "중국부녀보"는 최근 사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로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로 부르는 게 바르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위안부는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차용된 말로 일본이 전쟁 성폭력 가해자로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안부 문제 전문가로 이 영화에 역사고문으로 참여한 쑤즈량(蘇智良) 상하이사범대 교수도 신경보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에 '지원자'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일본군 생존자"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현재 생존자는 8명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⑤ 포도밭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에너지 전환 운동



전기공학도였던 필자가 에너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고들게 된 계기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지역 미래먹거리로 에너지를 생각했고 한전의 지역 이전에 일조를 했다. 에너지가 지역발전의 핵이 될 것이라 믿을 때문이었다. 필리버스터를 마지막으로 재총선의 기회가 왔을 때, 독일을 선택한 것도 에너지가 컸다. 기를 한 방울 안 나는 독일이 어떻게 탈원전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가 됐는지, 그 정책과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다.

독일 에너지 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세계적 그린시티 프라이부르크다. 1970년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는 이곳에서 30km 떨어진 비밀 지역에 원전을 세우려했다. 하지만 인근 포도 재배 농민들과 건

베를린에서 1시간 거리인 탈하임의 한화 큐셀 연구소에서 브리핑을 들으며, 그곳 상무에게 한국과 독일의 태양광 사업의 조건을 물었다. 일조시간과 일사량은 한국이 더 좋고, 가용면적은 독일이 조금 낫다고 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역할이 컸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우리가 중도 포기해버린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아쉬움이 생긴다.

세계 최대 규모인 함부르크 풍력박람회장에 가보니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미 독일의 주력산업이 됐다는 실감이 들었다. 원전에 주력하던 지멘스와 에너온, 쉐바는 같은 기업들이 어느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한 것이 보인다. 2015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 총사자는

광주 시민 멍치면 에너지 자립할 수 있다

축하도 람프 디쉬가 중심이 되어 반핵운동을 벌이며 대안에너지를 찾아내는 것까지 운동영역을 확장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상징인 솔라타워와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기, 태양광 전기 판매대 기구당 매달 250유로의 순수익을 올린다는 보봉 주거지구가 그 결과물이다. 이곳 주민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prosumer)가 되어 에너지 자립을 주도한다. 주민의 자동차 보유율은 20%, 트램이나 자전거를 애용한다. 겨울엔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고급 식당도 빈

33만 명,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수출과 신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의 새 기회가 될 거라 했던 메르켈 총리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세계 최고의 태양광 기술을 보유한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이곳에 자리 잡게 했다. 연구소를 방문해 홍보담당 티모 시거스과 에너지 정책담당 게르하르트씨를 4시간여 만났다. 직원만 1100명, 지역대학 학생근무자가 1400명에 달한다니 전형적인 산학연의 모델이다. 에너지 문제의 핵심인 발전, 효율, 소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프라이부르크 곳곳에 'We love Freiburg!'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전환을 위한 조건만 마련된다면 어느 지역보다 실패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광주인데!

이를 위한 공론화도 시급하다. 8월 초 국정기획의원인 김좌관 교수, 김익중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과 좌담회를 주최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자동차 제조, 도시환경, 도시재생 등을 아우르는 광주 성장의 큰 그림, 새로운 성장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2026년 영광원전 2기가 폐쇄될 것에 대비한 전략이 절실하다.

이들 위한 공론화도 시급하다. 8월 초 국정기획의원인 김좌관 교수, 김익중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과 좌담회를 주최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자동차 제조, 도시환경, 도시재생 등을 아우르는 광주 성장의 큰 그림, 새로운 성장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는 정치인 강기정이 12년의 의정활동을 잠시 멈추고, 베를린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머물며 기록한 독일의 industry4.0, 에너지, 경제, 정치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등골길 목 축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알자지라 방송은 22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의 수도 격인 시리아 락카 소식통을 인용, 20~22일 약 48시간 동안 미군 주도의 국제동맹군 공습으로 민간인이 최소 100명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은 주로 부정확한 현지 정보와 주민의 피란을 막은 채 주거지 안에서 저항하는 IS의 비인도적인 '인간 방패' 전술이 겹친 탓에 주로 발생한다. 락카의 집을 잃고 아인이사로 피난 나온 한 어린이가 학교길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연합뉴스



'10대 사살' 두테르테 '마약전쟁'에 부메랑

일부 군경, 초법적 체포 강행에 퇴진 요구

최근 유행 마약전쟁을 둘러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단속 경찰의 10대 용의자 사살사건을 둘러싼 반발 여론에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국방·교육 등 일부 각료들도 경찰의 무리한 대응을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필리핀 군과 경찰 단체를 지지하는 일부 조직이 퇴진을 요구하며 두테르테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숭신 10대 용의자 시신의 부검 결과 경찰의 '고의적인' 사살로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조짐을 보

이고 있다. 23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에 반대하는 군과 경찰청 관계자들의 모임인 '애국민주운동(PADEM)'은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군과 경찰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퇴진운동에 나서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PADEM은 두테르테가 군과 경찰을 사병화, 마약조직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중국인 사업가들과 친인척, 주변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서 열린 '마약과의 유행전쟁' 항의 시위. /연합뉴스

특히 마약전쟁을 수행하는 경찰의 초법적 살인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필리핀군 수뇌부가 긴급 성명을 통

해 PADEM과의 연계를 부인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상황도 벌어졌다.

필리핀 군은 성명에서 PADEM을 수상한 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근거없고 부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방장관 등 일부 각료가 경찰의 10대 사살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층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델핀 로렌zana 국방장관은 마약단속 경찰이 최근 10대 용의자를 사살한 사건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경찰의 무리한 대응을 강력히 비난했다.

필리핀의 전통 우방인 미국의 성김 대사 역시 델로스 산토스 군 군사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급 매”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복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복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